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作品解說集

날고기

2010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舞 踊 學 科

舞 踊 藝 術 專 攻

金 至 惠

金至惠의 舞蹈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작품개요	1
제 1 절	작품내용	1
제 2 절	작품의도	2
제 3 절	작품개요	2
제 2 장	작품구성	3
제 1 절	오프닝	3
제 2 절	1장	5
제 3 절	2장	8
제 4 절	3장	10
제 5 절	엔딩	12
제 3 장	창작과정	14
제 1 절	안무의 구성	14
1.	이미지	14
2.	동작	14
제 2 절	작품의 요소	16
1.	음악	16
2.	의상	16
3.	소품	17
제 4 장	작품후기.....	18

【 그림 목 차 】

(그림1) 구형을 띄고 있는 소품	4
(그림2) 기호로 해석한 혀	6
(그림3) 기호적인 움직임	6
(그림4) 두 개로 겹쳐진 소품	7
(그림5)신체를 접촉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움직임	11
(그림6)혀를 다른 신체와 접촉	11
(그림7)반복되는 심리적인 피해를 이미지화한 장면	13
(그림8) 심장의 찢줄이나 힘줄의 형태가 보이는 그림.....	15

제 1 장 작품개요

제 1 절 작품내용

“날고기”

나의 혀는 너를 상처내고
너의 혀는 나를 잠식한다.
즉흥적이며 냉정한 너의 혀는
침이 가득히 고여 나를 빨았다.
나는 녹아내렸고
혀는 아직도 남겨져 너를 끝없이 상처 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18:21

작품내용에 사용되려 창작된 시는 작품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만든 시이다. 위의 시와 작품의 주제는 ‘언어적인 측면이 지속적인 심리적인 상처를 입힌다’이다. 즉 언어적인 측면의 폭력성을 나타낸다. ‘혀’라는 신체기관을 인간의 언어적인 부분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판단하여 ‘혀’라는 단어로 언어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언어적인 측면을 ‘혀’라는 신체기관으로 해석한 것과 주제, 제목이 무용작품과 같다.

하지만 위의 시는 작품내용과 동일한 주제로 창작된 것이며 작품의 진행순서와 작품의 직접적인 표현과는 연관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의 시의 “빨는다”는 부분은 언어와 심리상태의 관계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작품에서의 빨는 모양의 동작과는 연관을 가지지 않는다.

‘날고기’라는 작품의 제목은 혀의 형상과 특징을 생각했을 때 동물적이고 본능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또한 신체기관 중의 혀는 유일하게 털이 없으며 항상 수분이 가득하다. 그 특징과 형상으로 미루어보아 혀는 마치 육즙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날것의 고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제 2 절 작품의도

힘으로 대결하는 것만이 폭력인가? 육체적인 폭력의 희생만큼이나 언어로 인한 폭력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작은 지체의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를 남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언어적인 측면의 폭력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순간이 지난 후에도 폭력성만이 남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피해를 입힌다.

하지만 외상으로 표현되는 직접적인 폭력의 비해서 법도, 세상의 잣대도 애매하기만 하다. 하지만 그 심리적인 피해는 막대하다고 생각했다.

관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언어적인 폭력의 이미지를 강렬한 이미지로 만들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작품은 잔잔한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폭력을 혀의 형상을 통해 엿히는 모습을 통해 지속적이고 잔인한 언어의 폭력을 이야기한다.

제 3 절 작품개요

목 록	내 용
제목	날고기
주제	대화속의 폭력성
러닝타임	15분
지도교수	박인숙
출연	김지혜, 송경일, 이정민, 정재우
음악	Yuta Kumachi
무대미술	이상의, 김지혜
무대감독	허 환
조명디자인	이경천
조명 스텝	조세현, 조성준
일시	2010년 11월 19일 PM 7:30
장소	포이동 M극장
주최	한성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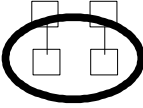
제 2 장 작품구성

제 1 절 오프닝

(오프닝) 혀를 드러내기 까지:

무용수: □

조명: ○

무대진행	조명	움직임	오브제
	센터 업스테이지 노란 조명	소품 속에서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움직임	센터 업스테이지. 두겹으로 접혔다가 원상태로 돌아온다.

내용:

입술 속에 말려 있는 혀는 잔잔하고 고요하다. 길의 형상만으로는 그 형체를 예상할 수 없으며 그 파급력 또한 상상할 수 없다. 그 칼날같이 날카로운 혀는 깊숙이 숨겨진 곳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다. 그 거대한 고요함 속에 서서히 형체를 드러낸다.

무대진행:

1장에서는 센터 업스테이지의 동선으로 제한한다. 동선은 입술을 기준으로 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며 제한을 두었다. 오브제를 입술로 보았을 때 오브제를 기점으로 뒤 또는 일정범위 이상 옆을 사용하지 않는다.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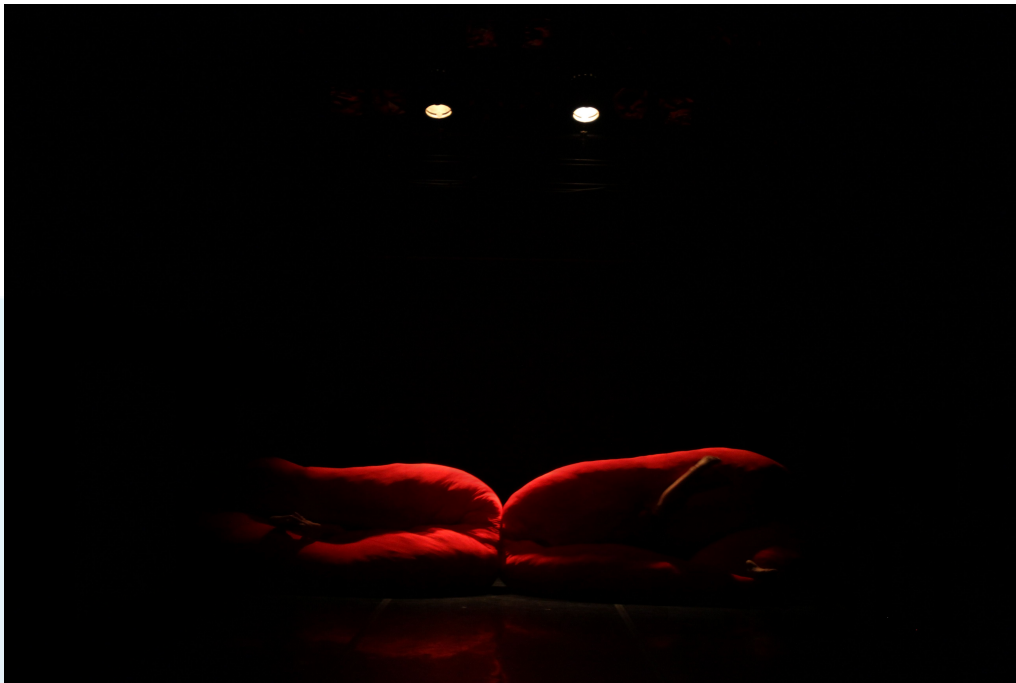
조명의 동선은 무대진행과 마찬가지로 혀의 가동범위를 생각하여 무대진행과 같이 한다. 조명의 색은 따뜻한 계열인 노란색을 사용해 항상 따뜻한 입 속과 혀의 온도의 느낌을 의도했다.

움직임:

밖에서 입술을 보았을 때 혀의 모양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무용수들은 오브제 속에서 고요하게 움직인다. 입술을 상징하는 오브제가 벌어지고 혀를 상징하는 무용수들은 서서히 신체부위의 한정되었던 움직임은 몸 전체로 발전시킨다.

오브제:

구형을 띄고 있는 소품은(그림1) 입술을 얼굴에서 떼어내 3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입술의 모습이며 각각의 혀가 내재하고 있는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혀를 항상 감추고 있는 입술의 특성을 고려하고 혀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혀의 능동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입술을 표현하는 오브제는 무겁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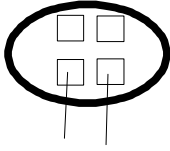
(그림1) 구형을 띄고 있는 소품

추가설명:

혀를 품고 있는 입술 속에서 또 다른 혀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변형된 기억이다. 자신의 혀들이 기억 속에 변형되고 왜곡되어 자신들을 영겨있는 채로 읊아맨다. 그리고 왜곡된 기억은 또 다시 반복된다. 변형된 기억을 담당하는 무용수들을 작품이 진행되면서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고 기존의 무용수들을 몰아가기도 한다. 폭력의 변형된 기억은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된다. 변형된 기억의 단편이 폭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함께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이다.

제 2 절 1장

(1장) 작은 지체로서의 혀:

무대진행	조명	움직임	오브제
	센터 업스테이지 노란조명, 다운스테이지에서 업스테이지 쪽으로 직선으로 쏘는 조명.	혀를 기호로 둔 움직임.	오브제는 정적인 상태로 무용수에 의해 조금씩 움직여진다.

내용:

관계성을 가지기 이전의 혀는 단지 작은 지체로서 존재할 뿐이다.

각자의 공간을 지키던 그들은 조용한 대화를 시작한다.

무대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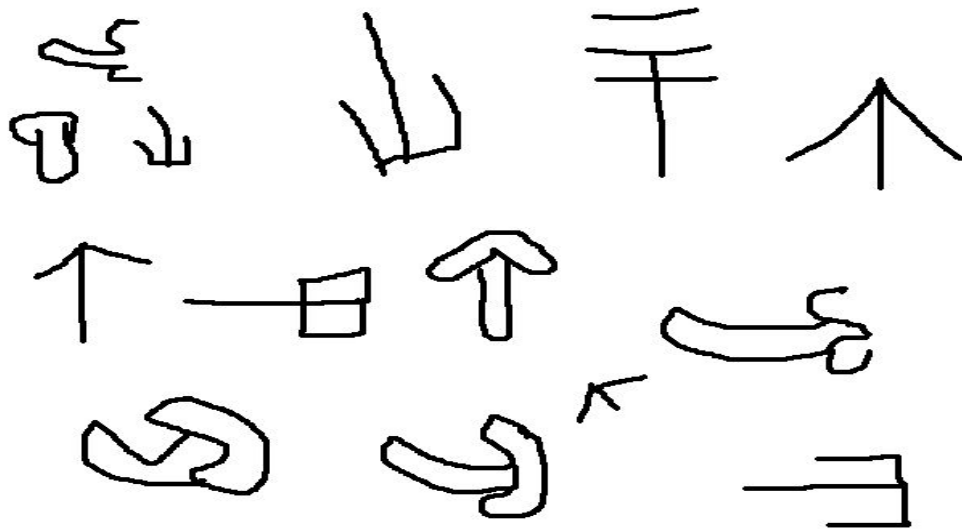
업스테이지에서 조금씩 다운스테이지 쪽으로 작품진행에 따라 서서히 진행한다.

조명:

조명은 따뜻한 느낌과 무용수의 움직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움직임:

업 스테이지부터 센터까지 나오면서 단지 작은 지체로서의 혀부터 두 혀가 관계성을 가지기까지 진행한다. 혀의 모양, 느낌, 색깔, 움직임 등을 작은 것부터 발전시킨다. 혀를 기호적으로 해석하여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춰졌을 때 기호를 나타내도록 한다.(그림2,3) 사전적이고 시각적, 촉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질감을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인격체나 감정을 절대 표현하지 않을 것에 주의한다. 작은 지체로만의 표현 후에 접촉을 갖지 않던 무용수들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폭력성을 가진 혀로서 발전하는 전환점이다.



(그림2) 기호로 해석한 허



(그림3) 기호적인 움직임

오브제:

오브제는 무용수가 처음 접촉하는 순간(무용수들이 폭력성을 가지게 되는 전환점)에 크게 이동하고 두 겹으로 겹쳐진다.(그림4) 두 개가 겹쳐지는 것은 관계성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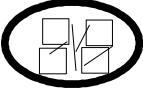
폭력성이란 개인 스스로가 존재할 때는 존재할 수 없다. 즉 폭력성을 떠는 의미로의 변화는 오브제가 두 겹으로 전환되는 이유와 앞으로 두 명의 무용수가 오브제와 같이 이전과 달리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타당한 이유이며 불가결한 이유이다.



(그림4) 두 개로 겹쳐진 소품

제 3 절 2장

(2장) 엮히는 혀:

무대진행	조명	움직임	오브제
	센터 노란조명.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받는 움직임.	오브제는 두겹으로 겹쳐져 정적인 상태를 유지.

내용:

다른 이의 감정에 관계된 언어, 즉 혀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끝없이 공존한다. 대화 속에 서로는 각자의 공간 속에서 서로에게 끈임 없이 영향 받는다. 보이지 않는 관계성과 폭력성 속에 서로는 엮혀간다.

무대진행:

센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혀는 중심축을 기점으로 어느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브제를 중심축으로 보았을 때 오브제를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명:

조명은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확장되거나 넓은 공간감을 갖지 않도록 조명을 최소화 한다. 이것은 혀 안을 관객이 들여다보는 느낌을 의도 한다.

움직임: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과 자극을 주고받는다. 움직임은 강요적, 강제적, 폭력성을 띠면서도 몸이 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영향의 주고받음이 분명히 느껴지지만 각자의 공간을 지킨다. 듀엣이 유닛이 되거나 표면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은 최소한으로 한다.

오브제:

오브제는 두 겹으로 겹쳐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추가설명:

언어적 폭력이 띄는 보이지 않는 관계성과 폭력성이 대한 상징적 장면이다.

폭력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 혀는 서로와의 얽힘을 통해 표현된다.

하지만 폭력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폭력의 특성적인 성격은 겉으로
는 표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체적인 상해나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언어폭력의 특징=닿지 않는다, 내면의 상처, 보이지 않는 영향, 개별적인 상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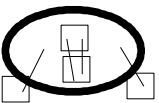
언어적인 폭력성은 내면의 상처이다. 내면은 점점 얽혀가지만 육체적인 변화는 고
요하다. 2장은 내면은 얽혀가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고요한 상태를 표현한다.

얽히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에 의한 얽힘보다 개별
적인 공간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점점 풀릴 수
없이 엉켜가고 있는 상태이다.



제 4 절 3장

(3장) 엉켜버린 혀:

무대진행	조명	움직임	오브제
	센터 업스테이지에서 센터 다운스테이지로 무용수를 따라 이동.	신체와 신체의 접촉, 혀와 신체의 접촉, 엉켜있는 동작.	오브제는 두겹으로 겹쳐져 정적인 상태를 유지.

내용:

엮혀버린 후에는 이미 서로에게 풀릴 수 없이 엉켜버린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 엉켜버린 모습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 서로의 엉켜버린 모습을 자각하고 난 후에도, 이젠 벗어날 수가 없다.

무대진행:

센터 다운스테이지에서 센터 업스테이지로 천천히 이동. 무대진행과 조명은 혀가 천천히 나왔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가는 동선을 이미지로 설정한다.

조명:

무용수들을 따라 천천히 센터 다운스테이지로 이동한다. 무대진행과 조명은 혀가 천천히 나왔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가는 동선을 이미지로 설정한다.

움직임:

2장은 엮혀가는 중의 육체적인 고요함 이었다면 3장은 엮혀버린 후의 엉켜버린 내면의 상태이다. 움직임은 엉켜버린 내면을 무용수들의 신체접촉으로 표현한다. 서로에게 신체가 접촉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인다.(그림5)

오브제:

오브제는 정적으로 두 겹으로 겹쳐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추가설명:

언어폭력은 표면적인 상해보다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3장은 직접적인 신체의 접촉으로 보여준다. 작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은 없지만 쌍방향으로 엉켜있는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면

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한쪽의 무용수로 옮기게 된다. 3장에서 혀가 다른 무용수의 신체와 접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신체의 접촉이 내면의 영감을 표현할 때“혀”라는 신체기관은 가장 내부에서 끌어 낼 수 있는 신체기관으로서 심장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혀와 다른 신체기관들의 접촉과 신체와 신체의 접촉은 3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풀릴 수 없이 영겨버린 내면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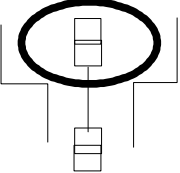
(그림5)신체를 접촉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움직임



(그림6)혀를 다른 신체와 접촉

제 5 절 엔딩

(엔딩) 지속적인 폭력성:

무대진행	조명	움직임	오브제
	센터 다운스테이지	떨어지고 부딪치는 장면, 기억을 연기하는 무용수들이 1장의 동작 반복.	오브제는 두겹인 상태를 유지하고 무용수는 오브제로 들어간다.

내용:

엮여있는 나의 모습을 자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반복되는 노력에도 소용이 없었고 그 지속적인 폭력성은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무대진행:

센터 다운스테이지에서 마지막까지 진행한다.

조명:

센터 다운스테이지에서 확장되지 않게 한다.

움직임:

기존의 무용수들의 반복되는 동작, 1장의 동작이 다시 보여 지는 것은 폭력만이 남아 상처가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으로 언어폭력의 지속적이고 무한한 반복되는 심리적인 피해를 상징한다. 또한 새로운 무용수들에 의해 기존의 무용수들의 동선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왜곡된 폭력의 기억이 자신들을 옴아매는 것을 상징한다.

오브제:

두 겹인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무용수들은 오브제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심리적인 피해의 근원으로 돌아가 관계성을 가진 상태를 유지하는 장면으로 기억은 반복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장면은 보이지 않는 반복적인 심리적인 피해를 이미지화해서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7)



(그림7)반복되는 심리적인 피해를 이미지화한 장면

제 3 장 창작과정

제1절 안무의 구성

1. 이미지

작품의 이미지는 언어를‘혀’라는 신체기관으로 표현한 성경에서 얻었다. 성경 내에는 언어의 폭력성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 작품의 이미지의 소스를 많이 얻었다.

잠언10:31-32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17:20 “마음이 사투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12: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혀는 눈감작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야고보서3: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시편10:7 “그 입에는 저주와 꾀술과 포학이 풍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스가랴14: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2.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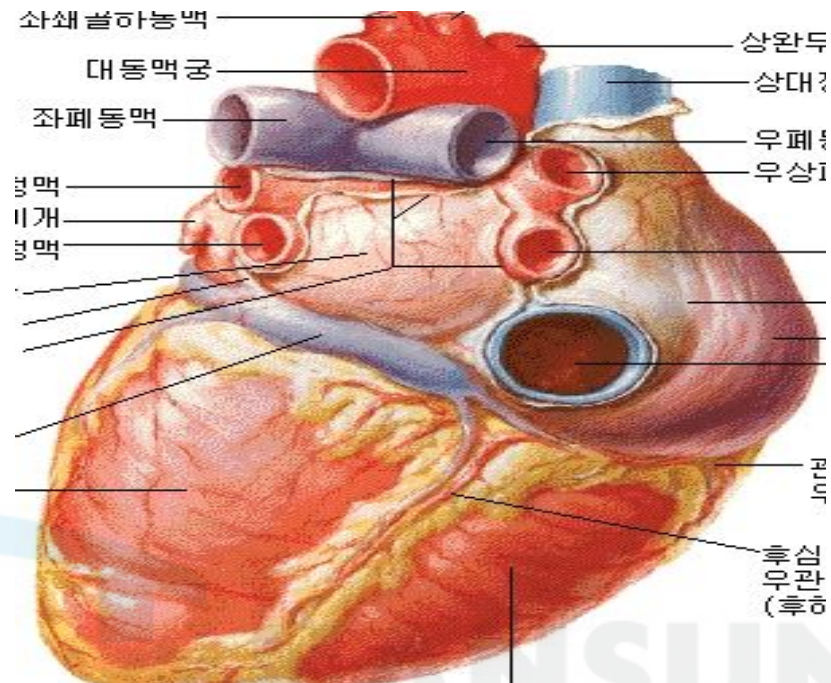
1장에서 작은 지체로의 혀를 표현할 때는 혀를 기호로 1차적으로 해석하여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들 만들어 내는 것에 주력했다.

대화가 시작되어 서로와의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2장의 경우에는 언어가 사용될 때 표현되는 관용구가 들어간 문장들을 수집하여 동작을 만들어내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¹⁾

3장은 심리적인 피해를 표현했기 때문에 심장은 심리를 대변한다고 판단했다. 서로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두 명의 무용수가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을

1) 언어가 사용될 때 표현되는 관용구들: 혀가 꼬부라지다, 혀가 돌아가는 대로, 혀를 굴리다, 혀를 놀리다, 혀 빼뺀 소리, 혀를 빼물다, 혀가 당도록, 혀가 돌다.

만들려고 노력했다. 혀의 기호적인 모양과 심장이 가지고 있는 핏줄이나 힘줄의 형태를 동작의 소스로 이용했다.(그림8)



(그림8) 심장의 핏줄이나 힘줄의 형태가 보이는 그림

제 2 절 작품의 요소

1. 음악

음악은 혀를 사용할 때에 나는 소리와 이미지의 소스로 사용된 성경구절을 빠르게 읽은 것을 직접 녹음하여 음악소스로 이용했다.

오프닝- 오프닝은 조용히 입안에서 숨쉬고 있는 혀를 표현했기 때문에 무음으로 설정했다.

1장- 혀 자체를 표현하는데 주력했던 1장에서는 혀를 이용할 때 나는 소리를 음원으로 사용한 음향의 비율을 높여 사용했다. 음향과 무음을 섞어 상대적으로 정적인 동작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의도했다.

2장- 리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음향효과의 비율은 낮추어 동작이 음악과 어우러져 동작이 더욱 증폭되어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했다.

3장- 리듬감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다시 음향효과의 비율을 높여 사용하여 정적인 동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엔딩- 음악은 조명이 꺼진 후에도 지속되며 속삭이는 듯 한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진다. 말소리는 계속 반복되고 엔딩 후에도 남아있으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의미와 동작의 잔상이 조명이 꺼진 후에도 남아 있는 듯 한 느낌이 들기를 의도했다.

2. 의상

무용수가 혀로써 표현되는 만큼 무용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깔이 의상으로 표현되기를 원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색과 머리카락의 색 등에서 색감의 소스를 얻었다.

살색과 같은 계열인 브라운상의와 적 빛을 띠는 브라운 하의를 선택했다. 팔다리가 노출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보이는 동작이 많다고 판단하여 팔 전체와 다리의 일부분을 노출했다. 혀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의를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피부가 드러나기를 원했다. 피부에 밀착되거나 피부가 약간 드러나게 보이는 듯 한 의상을 선택했다.

3. 소품

구형을 띄고 있는 소품은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입술을 얼굴에서 떼어내 3차원으로 보았을 때 입술의 모습이며 각각의 혀가 내재하고 있는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혀를 항상 감추고 있는 입술의 특성을 고려하고 혀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혀의 능동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입술을 표현하는 오브제는 무겁고 고요한 느낌을 주었다. 때문에 무용수가 오브제를 사용하면서 움직이거나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움직임의 제한을 두었다. 오브제는 작품전체의 이미지를 축약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치로서 작품이 진행되는 전반동안 조명을 이용해 무용수와 함께 노출시켰다.



제 4 장 작품후기

움직임과 장면 하나하나를 모두 상징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관객에게 그 움직임들이 상징하는 바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3장의 혀로 핥는 듯한 움직임이 의도하는 바 보다는 작품내용에 사용된 시에서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인 ‘너의 혀는 침이 가득히 고여 나를 핥았다’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혀를 심장을 대변하는 신체기관으로 판단하여 심리적인 상태를 혀가 다른 신체를 핥는 동작으로 표현된 것 이어서 움직임이 나온 경위가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작품내용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직접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작품내용에 ‘너의 혀는 침이 가득히 고여 나를 바라보았다’라고 쓰여 있었다면 핥는 움직임은 무엇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이렇게 작은 요소들 하나 하나가 모여 한 작품을 완성하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다. 그 사실은 작품을 만들어왔던 시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관객에서 오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았던 작품이라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나의 욕심에 2년간의 가르침들을 종합하여 내는 작품인 만큼 이 작품만큼은 관객에게 집중하기보다 작품자체만을 생각하며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실험적인 시도로 남아버릴 수도, 관객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면의 상징성과 움직임의 타당성과 무용수가 의미하는 바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다.

모든 동작에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각 장면마다 나오는 순간적인 동작들에서 작품 전체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기를 원했다.

관객은 마치 하나의 그림을 본 것 같이 15분의 작품이 하나의 이미지로 집결되어 여운이 남기를 원했다. 언어폭력의 지속성처럼 작품의 이미지의 잔상이 관객에게 전해져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폭력의 경험처럼 가슴속에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은 주고 싶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체적인 상해도 외상도 남기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의 심리적인 피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하지만 작품을 향한 이러한 욕심들이 관객들에게 너무 이미지만을 던져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감각적인 것들에 묻혀서 진정한 의미가 표현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남겼다.

작품을 마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부족한 부분은 더욱 채워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이번 작품을 만들고 작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과 경험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작품들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Mose, et al., 『비전성경』, 두란노출판사, 1998.

고바야시 신지, 『무용미학』, 현대미학사, 1983.

고려대학교 출판부 역, 『새로운 논문작성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민주식, 『아름다운, 그 사고와 논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